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4호 【루계 제25327호】 주체105(2016)년 7월 2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당신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건설과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조친선은 두 나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습니다.

귀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 근 평

2016년 7월 1일 베이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

원수동지

나는 2016년 6월 29일 평양에서 진행된 친선적인 귀국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고쳐지고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새로운 증혁수행에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투쟁행로를 따라 계속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도록 모든 국가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며 기울이시는 숭고한 노력들은 온갖 제국주의마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커다란 신뢰를 받으신 당신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조선혁명을 완수해나가실것을 축원합니다.

원수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6년 6월 30일 다마스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받들어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자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지열랭난방체계를 위한 하부구조물 1단계공사 결속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며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전해지고있다.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통과, 림흥지구의 10개소에 대한 침강정공사가 6월 28일까지 전부 끝났으며 상부구조물조공사와 변전실, 휴게실을 비롯한 기타 보조건물골조공사도 립체적으로 벌어져 95%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지난 6월 9일 황해북도려단이 맡은 1호침강정공사장에서 전해진 완공의 첫 소식에 이어 공사장 곳곳에서 련이어 울려퍼진 승리의 함성은 당에서 바란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일심단결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기상, 적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쳐갈기며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전진하는 조선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는 힘있는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려명거리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필요한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채광 등으로 해결하여 려명거리를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하부시설외부망분지휘부의 일군들은 지열랭난방에 필요한 물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인 침강정공사를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침강정공사가 땅속에서 벌어지는 물과의 치렬한 전투라는것을 고려하여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세우고 시공력량과 중기계들을 집중배치하였다. 특히 각 려단의 기술자, 기능공력량과 로력, 건설기계, 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시공분담을 과학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공사를 쉬임없이 하는 조건에 맞게 전문건설단위와의 기술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이와 함께 려명거리건설지휘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알뜰히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웠다.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집단적경쟁열풍속에 방송선전차들에서 울려퍼지는 힘찬 노래소리와 호소성이 강한 선동은 전투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높여주었다.

황해북도려단의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이 단숨에의 기상으로 침강정공사에 총돌격, 총매진하여 4개소에 대한 침강정공사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지휘판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풀어나갔다. 하여 지난 6월 9일 제일먼저 1호침강정공사를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낸데 이어 련속공격을 들이대여 11일에는 2호침강정공사를, 17일에는 3호, 4호침강정공사를 전부 결속하였다.

라선시려단의 지휘판들과 전투원들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23일까지 맡은 침강정공사를 전부 끝냈다.

이곳 지휘판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동원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많이 나오는 어려운 조건에 맞게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고 여러대의 양수기들을 증설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겼다.

황해남도려단, 평안남도려단의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도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쳐갈기며 맡은 침강정공사와 변전실, 보조건물공사를 제기일에 끝냈다.

려명거리 건설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대외경제성, 국토환경보호성, 대성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이 자주 현장에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중기계들과 건설기공구, 많은 자재들과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공사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지금 하부시설외부망공사에 참가한 각 려단의 지휘판들과 전투원들은 침강정공사를 앞당겨 결속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려명거리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현지보도반

주타격전방에 타오르는 공격전의 불길

각지 농촌들에서 김매기성과 확대

충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농업근로자들이 논김매기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논두벌김매기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10%이상 올랐다. 이 성과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릴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서해벌방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자각을 안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주타격전방에 나선 병사의 자세로 논김매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평안북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김매기에서 전례없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염주, 곽산, 태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능률높은 김매기수단들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그 리용률을 높여 논두벌김매기를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였다. 신의주, 정주시의 농장들에서도 로전벌, 남지벌 김매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짧은 기간에 논두벌김매기를 해제꼈다.

김매기전투에서 굴함없는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도적으로 논두벌김매기를 지난해보다 한주일 앞당겨 끝내고 세벌김매기가 한창이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논김매기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이상 뛰여오르고있다.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연백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장섰다. 배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오늘의 알곡증산투쟁은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전, 당정책관철전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논김매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였다. 연안군과 청단군의 농업근로자들도 농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중시하고있는 중대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일해나갔다.

결과 도적으로 매일 많은 면적의 논김매기를 질적으로 해제낌으로써 지난 6월 25일까지 논두벌김매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한 기세로 세벌김매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동해안의 농촌들에서도 김매기실적을 부쩍 올리였다.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논김매기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나갔다. 단천시의 농업근로자들은 김을 한번 더 매면 비료를 한번 더 준것과 같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논두벌김매기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금야, 함주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김매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었다.

강원도에서 논두벌김매기를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들어섰다.

천내군과 안변군, 정강군의 농장들이 논김매기에서 앞서나갔다. 특히 천내군의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는 립장을 가지고 김매기전투에 총동원되여 매일 높은 실적을 올리였다.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정에 의하여 논김매기성과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주창일

초등, 중등학원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남포시에서

남포시에서 새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근 5만㎡의 부지에 두개의 교사와 기숙사, 다기능체육관과 두개의 야외수영장, 식당들과 보조건물들, 잔디밭운동장 등이 건설되게 된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는 원아들의 학습과 문화정서생활, 몸단련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윽히 갖추어지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높이 받들고 풍치수려한 와우도지구에 옥아원과 애육원을 훌륭히 건설한 남포시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일떠세울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강력한 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건설력량과 수단, 자재보장사업이 따라섰다.

김남수, 심동선, 송시권, 한룡동무를 비롯한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면서 로력과 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건설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건설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해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한주일만에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끝냈다. 이어 두개 호동의 3층교사와 2층기숙사골조공사를 한달만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련이어 전반적인 건물들의 내외부미장에 진입한 돌격대원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일손을 놓지 않는 혁명적인 일본새로 공사를 다그쳐 전체 미장면적의 80%이상을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서해갑문사업소, 남포항만건설사업소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충폭발시키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전례없는 공사속도를 창조하고있다. 남포항, 대안전기공장의 돌격대원들은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립체전의 방법으로 지대정리를 내밀어 계획보다 공사일정을 앞당기고있다.

온천군과 대안구역의 녀맹원들이 건설장에 달려나와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시공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창선반과 기단돌, 보도블로크를 비롯한 마감건재의 질을 높이고 수지창과 출입문 등 마감자재를 좋은것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의 교구비품들도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돌격대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고있다.

건설지휘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초등, 중등학원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주체철, 압연강재 6월생산계획 넘쳐 수행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철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과 압연강재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6월 30일까지 200일전투 첫달생산목표를 각각 107%, 101%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이 오늘의 보람찬 진군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일군들이 들끓는 현장들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며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충폭발시켰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높이 세운 주체철생산과 압연강재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산소열법용광로와 초고전력전기로, 압연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게 함으로써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매일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충정의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생산현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주체철생산을 맡고있는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주체철생산을 늘여나갔다. 선행공정을 맡은 원료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쇠물생산을 최대로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체철생산이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주체철생산을 직접 맡고있는 로체작업반의 용해공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이들은 용해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차지당 쇠물량을 종전보다 늘이며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낼 압연강재생산을 맡은 청년선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환강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직장로동계급은 가열로와 랭각수관리 그리고 수십개에 달하는 압연롤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환강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특히 압연작업반원들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환강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중량레루생산을 맡고있는 조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가열작업반과 제품처리작업반을 비롯한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중량레루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만리마를 단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 생산단위들에서 힘있게 벌어져 기업소적인 주체철, 압연강재생산이 계획보다 뛰여오르고 체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 보내줄 중량레루생산전투목표도 136%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충정의 200일전투의 첫시작부터 큰걸음을 내디딘 황철의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철강재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글 특파기자 김천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정론

당정책신봉자들에겐 불가능이 없다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한 평양곡산공장을 돌아보고

비약하는 우리 시대, 창조대전의 진군포성이 련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땅에 승리의 표대마냥 높이 올리는 말이 있다.

당정책!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치는 려명거리건설장으로부터 주체철이 쏟아지는 굴지의 야금기지와 황금벌의 력사를 펼쳐가는 협동전야, 인민생활향상의 열매들이 무르익는 경공업공장들에 이르기까지 당정책, 이 세 글자가 살아숨쉰다.

비약의 숨결 나래치는 곳, 기적이 태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당정책신봉자들이 있으며 당정책사수전의 불길드높은 곳엔 불가능이란 없다.

당정책은 투쟁의 교과서이고 창조의 백과전서이며 희망과 승리의 밝은 등대이다.

불변의 이 진리를 자력자강의 눈부신 현실로 증명해보이는 귀중한 본보기가 여기에 있다.

＊ ＊

온 나라가 찾아온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당정책관철의 훌륭한 경험을 배워간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평양곡산공장구내를 걷고있다.

너무도 깨끗하고 희한하여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마주한것 같다. 훌륭한 편의봉사시설들과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진 청춘원이며 귀여운 아이들의 뛰노는 모양이 꽃처럼, 나비처럼 어려오는 공장탁아소, 빨간 장미며 푸른 잔디가 정갈하게 펼쳐져있어 공원인가 했더니 어느덧 우리앞에 생산구역이 나선다. 옛 모습을 털고 새롭게 일신한 가공직장, 물엿직장, 옥당직장, 사탕직장, 과자직장, 엿가리직장, 효소작업반…

여기서 평양곡산공장이라는 이름그대로 밭곡식의 왕인 강냉이가 갖가지 보물이 되어 쏟아진다. 정말 듣고보니 강냉이가 못하는 일이 없다.

불쿠기와 갈기공정을 거친 강냉이가 농마와 껍질, 눈, 단백으로 분리된다. 농마는 액화, 당화, 려과, 농축공정을 거쳐 물엿이 된다. 그 물엿으로 사탕도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겨먹는 강냉이엿가락도 만든다. 그것을 결정화시켜 만든 약용포도당도 그득그득 쌓여있다. 물엿생산과정에 나오는 당화물로 또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신 옥당이였다. 처음에는 과당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그러던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냉이에서 뽑은 당이라는 의미에서 옥당이라는 새 이름을 달아주시고 오늘은 또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의 원료로, 우리 식의 가공방법으로 뽑은 당이라고 하여 주체당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빛내주시였다.

새길수록 깊은 뜻을 심어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

지금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생산되는데 이 공장에서 나오는 당은 주체당이라고 하시며 그처럼 만족해하시던 그이의 심중의 세계가 심장을 파고든다.

주체당!

이로써 강냉이를 원료로 당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었다고 생각하니 만세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다. 버리는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 또한 좋다.

단백과 껍질로는 집짐승먹이를 생산하고 눈으로는 옥쌀기름을 짠다. 속껍질로는 알콜을 만든다. 《은하수》상표를 달고 멋지게 포장되여나오는 제품을 보느라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이다.

하지만 《은하수》의 그 물결이 남의 기계를 타고 흘러나오는것이라면, 남의 기술로 안아올린것이라면 그 무슨 자랑이겠는가.

알고보니 강냉이가 못하는 일이 없는것이 아니라 국산화가 못 부리는 재간이 없다.

강냉이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우리의 원료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완전히 우리의것으로 일신시킨것이다.

생산설비도 우리의것, 분석설비도 우리의것, 효소배양기질과 기술도 우리의것, 정보체계도 우리의것!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왜 그토록 이 공장을 두고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본보기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폐부로 느끼며 심장으로 깨닫게 되는 걸음걸음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백합과자콘베아를 비롯한 각종 콘베아들과 크고 육중한 가마들과 탕크들, 착유기 등 수십종에 100여대의 기계설비들을 국가설계기관이나 이름난 나라의 기계공장도 아닌 공장자체의 힘으로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였다니 그 또한 시사해주는바가 크다.

생산설비의 국산화만 자랑이 아니다.

이전에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분석설비들도 과학자, 기술자들의 손으로 첨단수준에서 만들어져 종합분석실을 꽉 채우고있고 종전의 생산방법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강냉이농마를 기질로 하여 만든 효소에 의한 당화물생산공정이 더욱 완비되였다.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여러 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시 및 조종할수 있는 정보체계도 과학기술력량이 동원되여 확립한 우리의것이다.

이 공장을 돌아보느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우리 당이 오늘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는 국산화란 생산설비의 국산화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에 복무하는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우리의것으로 만드는것이라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정말 공장을 돌아볼수록 우리 당의 국산화정책을 해설한 교과서의 한장한장을 번져보는것 같아 흥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참으로 귀중한 수업이였다.

우리 식의 현대화로 식료공업의 주체화가 다그쳐지고 생산장성의 길이 열린것도 주목할만 한 진보이다.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다.

우리 식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당의 사상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에 다름아닌 사람들이 몰라보게 성장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공장에서 당이 바라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고, 이것이 일석다조의 성과를 거두는 국산화투쟁이라고 하신 가르치심의 뜻이 심장을 파고든다.

일석다조!

자기 힘과 기술로써 현대화의 무수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 공장의 모든 성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화, 체질화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되고 현대화의 열풍속에 모두다 과학기술의 소유자, 창조의 주인으로 성장하였다. 평양식료련합기업소와 이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방대한 현대화공사를 다그치는 속에 문명한 생활을 지향하는 꿈과 리상도 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공장은 현대화를 하는 과정에 50년을 주름잡았다고 하신것처럼 이렇게 세가지 혁명이 동시에 추진되니 세월은 세월대로 앞당겨져 누구나 만리마기수가 되였다.

국산화 만세이자 당정책 만세, 자강력제일주의 만세, 주체사상 만세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야말로 조선이 강국건설의 길에서 높이 추켜든 승리의 붉은기이고 대조선고립압살책동으로 눈에 피발이 선 제국주의의 뒤통수를 보기좋게 내리치는 주체의 철퇴이다.

자력으로 흥하는 이 세월의 숨결, 나날이 조선의 힘이 세계에로 뻗치는 이 장쾌한 기상은 어디서부터 뿜어져나오는것인가.

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평양곡산공장의 일군이 한 말이 심장을 울린다.

《우리는 다만 당정책의 구절구절을 현실로 옮겨놓았을뿐입니다. 온 나라가 배워야 할 국산화의 위대한 교과서, 우리 식 현대화의 교본을 쓰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다.

가시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현대화가 바로 당이 요구하는 현대화라고 하시며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를 앞서는 우리의것을 만들고 우리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게 창조하는 문제 등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음성이.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이번 현대화에서 기본은 국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이라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뚜렷한 목표를 밝혀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사회주의강국의 패업을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 제일 많이 울리는 말도 국산화이고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 때도 자강력의 흐뭇한 열매를 보실 때이다.

전재생산기지에 가시여서는 전재의 국산화를, 어분사료공장에 가시여서는 물고기먹이문제를 자체로 해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의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시였으면 100% 국산화된 우리의 경비행기가 나왔을 때에는 너무도 기쁘시여 하늘에 비행운까지 새기시였으랴. 우리의것, 과연 그이께 있어서 그것은 무엇이기에 그때문에 기뻐도 하시고 그때문에 밤잠도 잊으시며 분투하시는것인가.

우리의것의 창조는 그이께 있어서 어떤 경제실무적문제이기 전에 추호의 드팀이 없는 자주적신념이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기어이 자력으로 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압력과 제재소동에 매달린다 하여도 우리 힘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 이것이 우리 원수님의 자존심이고 드놀지 않는 배짱이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세상에 자랑할 우리의것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와 온 나라에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무한한 애국, 애민의 세계를 전하자면 끝이 없으리라.

세계를 둘러보면 억대의 재부나 남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나라와 민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당은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이름도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는 길에 자강력제일주의를 백승의 보검으로 추켜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그 첫 뿌리가 내리고 가지를 뻗친 자강력이라는 거목을 더욱 왕성하게 자래워 대대손손 따들일 행복의 열매, 번영의 오곡백과를 무르익히시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의 심혈을 다 바쳐 마련해놓으신 튼튼한 토대와 우리 식의 창조의 전통이 있다.

평양곡산공장의 연혁사를 우리 잠시 펼쳐보자.

이곳 로동자들에게 자력의 마치를 쥐여주시며 제힘으로 일떠서는 법을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력사가 뜨겁게 어려온다. 그 나날속에 이곳 로동계급은 미제가 공장을 여지없이 파괴해놓았을 때에도 단 72일만에 공장을 살려내고 자체의 힘으로 가축기도 만들어냈다. 우리 수령님께서 옥쌀직장을 일떠세우라면 옥쌀직장을, 공장능력을 확장하라고 하시면 제때에 집행하군 하였다.

우리 로동계급에게 국산화만이 행복의 길이고 번영의 길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신분도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오래동안 먹어오던 통강냉이를 그대로 먹일수 없다고 하시며 누구나 사탕수수가 없이는 당문제를 풀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강냉이를 가지고 옥당을 생산하여 사탕문제를 푸는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사탕수수를 심어서 사탕을 생산하는것과 옥당을 생산하여 당문제를 푸는것의 호상실리를 따져보시던 가슴뜨거운 그 헌신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식료공업의 주체화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우리 장군님께서도 온갖 심혈을 깡그리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평양곡산공장에 주신 마지막 유훈도 옥당생산을 활성화하는것이였다. 공장을 현대화의 큰길에 내세워주시고 우리 수령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옥당을 펑펑 생산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효소문제를 우리 식으로 완전히 해결할데 대한 명철한 방안을 내놓으신 우리 장군님.

평양곡산공장만이 아닌 이 땅의 가는 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의 신념, 애국의 자욱이 새겨져 빛나는것이 우리 조국의 가슴뜨거운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마련된 자력자강의 튼튼한 토대와 고귀한 전통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국산화를 해야 만리마를 탈수 있고 국산화를 해야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가 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왜 그처럼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을 헤치시며 평양곡산공장 로동계급을 한품에 안아주셨는지, 국산화에 이바지한 과학자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토록 정겹게 바라보셨는지, 당정책이 훌륭히 집행된 단위들에 가시면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당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단위들을 찾을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업어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는지 누구나 그 뜻을 심장에 새겨야 한다.

자력의 열매는 당정책신봉정신을 토양으로 하여 주렁진다.

평양곡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강냉이를 원료로 당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집행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국산화정책을 곧 법으로 여기고 무조건 따르고 끝까지 사수했기때문이다.

설계도면만도 수천매, 현대화에 이바지한 부속품과 부대설비만도 수만개.

이것은 그대로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당정책의 승리가 증명될 때까지 온넋을 깡그리 불태운 당정책사수의 피타는 걸음걸음이였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자. 우리 당의 국산화정책은 다같이 접수하고 길은 똑같이 떠났는데 왜 실천에서는 차이가 나는가. 바로 당정책신봉의 열도에서 시대의 선구자와 락오자가 갈라진다.

우리의 인민군대가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을 끝끝내 성공시킬수 있은것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생산설비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여 우리의 원료로, 우리가 만든 기계로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당정책을 운명의 명줄로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왔기때문이다. 국산화비중의 높이이자 당정책신봉의 열도이다.

여기에 평양곡산공장 공무직장의 오랜 로동자가 한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보니 우리가 옳았구나, 힘들어도 당에서 하라고 한대로 한 보람이 크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자기 힘을 믿고 결사적으로 달라붙으니 안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정책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면 큰 산도 발아래로 보인다.

하기에 이들은 CNC설비로만 가공할수 있다던 복잡한 기능의 기계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제작할수 있었고 외국기술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엄두도 낼수 없다던 효소배양기술에서 눈부신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자강력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고 국산화의 길은 욕망만으로는 갈수 없다.

세계를 앞서는 조선의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자면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한다.

과학이자 애국이고 창조이다.

이번에 평양곡산공장에서 자체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생산설비들에 대한 설계를 훌륭히 완성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은 많은것을 깨우쳐준다.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로 하니 로력을 절약해서 좋고 주인들의 구미에 맞는 진짜 우리의것이 되어 좋다. 정말 과학기술을 틀어쥐니 복이 쌍으로 찾아들고 조국에 보탬을 주는 일도 더 많이 찾아하게 되었다고 체험자들은 진심을 터놓는다.

나의 기술, 나의 지혜로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조국의 전진을 떠밀자!

이런 깨끗한 애국적량심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오늘의 창조대전에 용감히 뛰여든다면 조국은 그 얼마나 비약하고 우리 살림은 또 얼마나 풍성해질것인가.

당정책관철의 기수는 일군들이다.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시키는 집단의 기수도, 한번 시작한 일을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투쟁의 선구자도 다름아닌 일군이다.

평양곡산공장은 물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하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그리고 당정책관철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에서처럼 일군들부터가 제힘을 굳게 믿고 현대화작전을 펴나간다면,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화선식으로 일판을 벌린다면 어디서나 경이적인 성과가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될것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일군이라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힘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는 과학적인 타산안을 세울줄 아는 능력, 새것과 낡은것을 판별할줄 아는 시대적안목, 일단 결심한 문제는 끝장을 볼 때까지 끌고나가는 완강한 내밀성과 용감성을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국산화의 길, 자력자강의 길은 온 나라가 가야 할 길이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뒤침을 터치며 온 나라에 창조의 불바람을 줄기차게 일으키자. 앞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뒤떨어졌다고 락심하지 말자.

끝까지 가야 승리자이고 세계를 앞서나가야 진짜 우리것이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어디서나 시대가 요구하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교과서를 쓰자.

자기의 얼굴이 뚜렷한 당정책관철의 열매가 가는 곳마다에 주렁지게 하자. 하여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호, 아름다운 우리의 공화국기가 우리의 창조물과 더불어 세계의 어디서나 빛을 뿌리게 하자.

박 옥 경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함경북도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숭고한 사랑으로 빛나는 헌신의 자욱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시원하면서도 훌륭하게 꾸려진 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건설장을 찾아와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그동안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그이께 중앙홀을 휴식홀로 꾸리려고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은 극장이 아니므로 중앙홀에 주단을 깔기는 곤난하다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 공간에 기단을 형성하고 돌로 조각같은것을 만들어놓은 다음 매대를 꾸며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이 홀은 휴식홀인것만큼 여기에 반드시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2층에 있는 소금한증칸과 소나무한증칸, 종유석한증칸을 차례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증을 편안하게 앉아서 할수 있게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일군들을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뜻깊은 그날 일군들은 그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보다 마음쓰시며 깊이 관심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에 가슴이 젖어들었다.

일깨워주신 문제

몇해전 6월 어느날, 새로 개건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해놓은 전시장에도 들리시였다.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가루된장이라고 쓴 제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한동안 가루된장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키시며 일군들에게 그 리용방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공장일군들은 물론 수행한 일군들도 그이께서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이때 공장의 한 일군이 가루된장에 수분이 50%정도 되게 물을 넣어 리용하면 된다는데 대하여 설명해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제품에 사용방법을 써넣지 않았으니 어떻게 리용해야 하는지 잘 알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다시금 제품을 들여다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책감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보시며 포장용기에 사용설명서를 꼭 써넣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본사기자 강 철 남

사회주의경제강국의 면모와 본질적특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강국건설을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정하시고 경제강국의 본질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경제는 국력을 담보하는 물질적기초이며 경제강국은 사회주의강국의 중요한 징표이다. 국가경제력의 발전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에 강력한 경제적힘이 안받침된 사회주의강국은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나라이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라는것은 경제를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 식으로 건설된 경제, 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자립경제강국이다.

제발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경제, 남의 힘에 의거하는 경제는 사실상 전도가 없는 경제이다. 경제의 명줄이 남에게 쥐여져있으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나갈수 없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같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순식간에 거덜이 나고만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크고 생산력이 발전되였다고 하여도 자립성, 주체성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는 경제강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자립성, 주체성은 경제강국의 근본징표이다.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며 경제의 부문구조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완비된 나라가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경제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도 평등의 원칙에서 잘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200일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우리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려는 천만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대고조전장들마다에서 더욱 고조되고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자립의 길, 주체의 길이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제재봉쇄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오늘 우리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실현을 자립성, 주체성보장의 중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나가며 에네르기, 동력문제와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완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은 생산력을 대표하고있으며 경제장성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이다.

지식경제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기초로 하는 경제, 정보화에 의거하고 정보고속도로를 하부구조로 하는 경제,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일뿐아니라 학습형의 경제라는데 로동력경제, 자원경제와 다른 특징이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이다.

과학기술중시는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우리 당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지식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식의 CNC기계바다가 펼쳐지고 우리의 주체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련이어 솟구쳐오르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있는것은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당 제7차대회 보고에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고 록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부단히 개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킬 때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될수 있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생산력발전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락원이라는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특징이 있다.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생활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확대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 때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이 제시한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룡

200일전투의 날과 달을 백옥같은 충정과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아가자

위대한 령장의 발걸음따라 조선은 나아간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게 될 충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한달이 지났다.

200일과 한달,

앞을 내다보면 결승선은 아직 멀리에 있다. 그러나 만리마를 타고 비약의 한걸로 줄달음치는 내 조국의 한달에서 천만군민은 200일전투의 승리를 확신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헤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200일전투의 한달,

어떻게 흘러온 날과 달이였던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전해지는 자랑찬 위훈의 소식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달구어주었다.

과학기술로 번개쳐 달리고 자력자강으로 긍지높은 혁신의 새 소식, 장쾌한 승전소식에 접할 때마다 이 땅 누구나의 마음속에 먼저 간직된것은 우리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내 조국을 위해, 우리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시며 한생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하시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혁명시간이 있어 20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우리 원수님의 혁명시간, 그것은 애국헌신의 분분초초였다.

200일전투전야에 있은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지난 5월 29일,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서고있는 보전산소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건설에 참가한 일군들은 다른 날도 아닌 일요일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전산소공장건설장을 찾아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손에 보전산소공장건설형성안을 드신채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차에서 내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번졌다.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세상에 둘도 없는 보전산소공장을 안겨주시려 먼지가 흩날리는 건설장의 구석구석까지 돌아보시며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다시한번 심장깊이 절감했다.

이 땅의 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무르익으며 얼마나 휘황찬란한 미래가 마중오는가를.

충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전해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는 그 얼마이던가.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룡악산비누공장건설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류경김치공장, 평양곡산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그 하나하나를 합쳐도 인민중시의 무한대한 세계가 펼쳐지고 인민사랑의 바다가 출렁인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내 조국땅에는 200일전투의 시작부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소문거리, 자랑거리들이 늘어나고있다.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일러오는 룡악수려한 룡악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 들어서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진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속에 비친 내 조국, 사랑하는 인민의 모습이고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여 영원한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이다.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주시며 주체조선의 부강번영을 지켜주신 천출명장의 거룩한 행로가 뜨겁게 어리여온다.

지난 6월 23일 온 행성을 뒤흔드는 충격과가 메아리쳐갔다.

주체조선의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에서 성공!

또 하나의 대경사로 온 나라에 기쁨과 환희의 파도가 물결쳤다.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수백리 밤길을 달려 발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 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부문에서 70일전투때와 마찬가지로 200일전투의 창조대전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우렁차게 울려 조국강산을 진감시키였다고,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일대 장거로 된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자기 령도자,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애국충정의 피를 펄펄 끓이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우리 원수님을 우러르며 국방과학전사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그 성공을 위해 기울이신 우리 원수님의 사색과 심혈, 바치신 로고는 과연 얼마이던가.

력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화폭이 지금도 우리의 눈시울을 적셔준다.

오늘의 성공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험발사에 기여한 한 일군을 힘껏 포옹해주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의 넓은 품에 안긴 일군은 한없는 격정에 목메여 흐느꼈다. 그 일군만이 아닌 국방과학전사들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그것은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성공에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에서의 성공은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총공격전, 총돌격전을 전개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떡 떼, 천배해주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가혹한 제재와 봉쇄,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억년성새마냥 끄떡없이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불패의 강국 사회주의조선.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천하제일명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 자강력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오늘의 200일전투의 창조대전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우리 천만군민은 마음의 신들메를 바싹 조인다. 오늘도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간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충정의 200일전투의 한초한초가 흐른다.

위대한 천출명장의 발걸음따라 조선은 나아간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강성조선의 휘황찬란한 래일이 보인다.

본사기자 김 일 권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 천만군민의 불같은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속에 200일전투의 첫달이 흘러갔다. 지난 6월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온 나라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하여 세차게 끓어번진 거창한 창조와 위훈의 나날이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20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에 주체철생산계획을 106%로 넘쳐 수행》,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매일 수십만kWh의 전력을 증산》, 《신계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네밀김매기실적 최고기록 돌파》, 《연사림산사업소에서 6월 15일까지 년간 통나무생산계획 완수》…

이런 혁신의 소식들이 매일같이 전해진 6월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이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 백절불굴의 투쟁을 벌려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어 200일전투가 첫시작부터 그렇듯 활력에 넘치고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이다.

◇ 오늘의 하루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폭풍쳐 내달리자, 이것은 혁명의 요구이고 시대의 부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년간 우리는 1년을 10년 맞잡이로 투쟁하여 많은것을 일떠세웠습니다.》

참으로 격동적인 시대, 보통의 각오와 열정, 여느때의 보폭과 속도로는 따라설수 없는 대비약, 대혁신의 시대가 우리앞에 펼쳐져있다. 《최후승리》, 《만리마속도》, 《최상의 문명》과 같은 말들이 공기처럼 사회에 흐르고 평범한 생활용어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이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훌륭하고 덩지가 큰 건물이 이처럼 빨리 일떠서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방대한 공사를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것은 기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창조하고있는 투쟁속도에 한복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새것을 창조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여기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비약해나가는 시대의 숨결과 기상이 맥동치고있으며 우리 인민모두가 발휘해야 할 혁명열, 애국열의 높이가 깃들어있다. 전체 인민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투쟁해나갈 때 세월을 주름잡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드높이 200일전투를 더욱 파감히 밀려나가야 한다.

지금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세상을 들었다놓는 눈부신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6월에만 하여도 수십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완공하여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였다.

우리는 려명거리건설자들처럼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비약의 불비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하지 않는 왕성한 일욕심, 두몫, 세몫씩 맡아안고 뛰고 또 뛰는 결사의 투신력, 흐르는 시간을 분분초초로 쪼개가며 괴롭게 탐구하고 실천하는 불같은 열정을 지녀야 한다. 하루하루의 영웅적투쟁으로 미래의 열흘, 백날을 당겨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200일전투를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 필

만리마선구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국방과학부문에서 이룩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소식은 온 나라를 끝없는 격정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얼마전 자주와 정의의 장엄한 퇴성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통쾌하게 열어제낀 국방과학전사들을 맞이한 평양시민들은 아낌없는 찬사의 목소리를 터치며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200일전투의 장쾌한 승전포성을 울린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만리마시대의 자랑찬 선구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또다시 과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 그들은 만리마시대의 미더운 기수, 선구자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 새로운 전략무기시험발사의 성공으로 필승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세계에 떨쳐보임을 긍지높이 아뢰인 기쁨에 넘쳐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어느 한 과학자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실패의 곡절속에서 지쳐들이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성공에로 이끌어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우리 조국을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찬란한 앞길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위대한 애국자, 위대한 선구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이 끝없는 매혹과 흠모의 정을 안고 심장에 아로새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였다.

병진의 승전포성으로 원쑤들의 핵전쟁광기를 단호히 쳐갈기시고 최후승리의 굳건한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열어주신 강성번영의 직선주로를 따라 인민의 리상과 포부가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이나는 세월,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는 시대, 건설의 대번영기…

가슴부푸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부름들을 찹아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 따르는 길에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확신이 천백배로 억세여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돌격속도에 마음과 숨결, 보폭을 맞추며 천만군민이 련속공격의 발구름소리를 힘차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이때를 결고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만리마선구자가 되자!

천만군민의 심장은 이런 용암파도 같은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가는 200일전투의 장쾌한 승전포성이 하늘땅을 뒤흔든다!

본사기자 조 경 철

200일전투성과와 혁명적학습열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대한 전당적, 전사회적인 학습열풍이 고조되는 속에 온 나라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200일전투가 개시되여 한달동안에 이룩된 혁신적성과들은 당의 사상과 로선을 뼈속깊이 새아박고 투쟁한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과 대중적영웅주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사상이 혁명의 원동력이라면 학습은 사상을 더욱 벼려주는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학습을 통하여 사상정신적방식을 얻고 투쟁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아야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사소한 주저나 동요를 모르고 혁명의 승리를 위해 한몸 다 바쳐 싸울수 있다.

당 제7차대회 보고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수 있는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이며 천만군민을 새로운 혁명적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로선과 투쟁과업들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할 혁명사상과 투쟁기풍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 제7차대회 보고야말로 천만군민의 투쟁의 표대이며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200일전투의 첫달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용진군대오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는 단위들을 보면 누구나 당 제7차대회 보고에 대한 학습을 원리적으로 심도있게 하고 그 관철을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현실은 높은 학습열풍이자 200일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학습열풍은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게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사람들의 혁명적신념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학습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리론,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 때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된다.

당정책학습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사상과 로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된 혁명가들로 키우는 첫 공정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학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밖에는 그 무엇도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은 바로 혁명적학습열풍속에서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은 사람이다.

오늘 천만군민은 당 제7차대회 보고를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앞당겨지게 된다는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전체 인민이 당정책학습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당중앙의 사상과 숨결을 깊이 헤아려가기에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는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사상의 총진군으로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다.

학습열풍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전인민발발의 의지를 높이 발휘하게 하는 추동력이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인사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당정책학습을 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가지고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전인발발의 의지와 대담무쌍한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고있다. 북창,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6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려명거리건설장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만만한 기세로 들끓고있다. 우리 당이 안겨준 굴함없는 공격정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나가는 인민이 있기에 200일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학습열풍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묘술을 찾게 하는 기본열쇠이다.

지금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열쇠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키워 석탄생산에서 단순한 량적장성이 아니라 질적인 비약을 가져오려는 이들의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투쟁기풍은 혁명적학습열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학습열풍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0일전투에서 다시한번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학습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만리마시대의 기수가 되여야 할것이다.

김 성 룡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세차게 지펴간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명대탄광에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석탄화학연구소에서

룡양광산에서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

온성군에서

현지보도반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우리 조국의 빛나는 력사를 수록해가는 긍지와 영예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록영화와 과학영화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니다.》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얼마나 많은 기록영화, 과학영화들이 제작, 창작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성스러운 력사를 생동한 화면으로 기록하였으며 혁명이 요구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반영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충실히 복무하였던가.

우리의 기록, 과학영화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빛나는 오늘은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걸어온 영광의 70년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믿음과 사랑의 력사, 충정과 보답으로 수놓아진 긍지로운 력사였다.

빈터에서 시작한 첫걸음

해방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록영화창작도 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기록영화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힘있는 선전수단일뿐아니라 통원자적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기록영화의 위치와 역할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어데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실같지만 영화로 찍어두면 몇십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력사자료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술영화에 앞서 기록영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하여 영화반이 나오게 되였다.

첫 기록영화를 만드는 김우에 가로놓인 난관들은 실로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화가 하루빨리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촬영할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주체35(1946)년 7월 1일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새 조국건설의 들끓는 현실을 반영한 첫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이 태여나게 되였다.

도시와 마을들에서 우리의 첫 기록영화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지만 그들도 다음의 사실들은 알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그 기록영화를 보아주실 때였다.

한참 돌아가던 화면이 5.1절기념 군중시위장면에서 그만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였다. 편집과정에 그만 필림을 잘못 붙여놓았던것이다.

자기들의 첫 작품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리게 되였다고 기뻐하던 영화반성원들은 당황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추궁하는 한 일군을 만류하시며 첫술에 배부르겠는가, 조금도 락심말고 다시 잘해보라고 영화반성원들을 고무하시였다.

그 믿음이 지칠줄 모르는 힘을 주고 마를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었으니 영화반성원들은 마침내 우리의 첫 기록영화를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는 자기의 첫 자욱을 이렇게 떼였다.

여러차례 나 촬영소에 나오시여 《인민군대》를 비롯한 기록영화들을 한편한편 보아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록영화건설구상과 의도를 받드시여 인민이 바라는 영화를 잘 만들도록 창작가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아래 우리의 창작가들은 1940년대 후반기에 《민주선거》, 《인민위원회》, 《남북련석회의》를 비롯한 기록영화들과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달아주신 《조선시보》를 훌륭히 만들어냄으로써 새 생활창조에 일떠선 인민을 고무추동하는데 적구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였다. 전선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전시기록영화의 전투적역할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록영화촬영가들을 전선종군의 길에도 세워주시였다.

기록영화촬영가를 만나시여 전쟁시기 종군촬영가들은 군대들과 함께 행동하여야 인민군군인들의 전투장면을 잘 찍을수 있다고 하시며 위대한 전승사를 수록하는데서 창작가들이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한발의 총탄도, 한발의 포탄도 귀중하던 그때 영웅조선의 본때를 과시하며 싸워가는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더 잘 수록하라고 귀중한 영화설비와 기재까지 보내주신 우리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세계는 그 얼마나 웅심깊었던가.

전선에서 활약하는 촬영가들의 품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신임장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에 《전세계에 고함》, 《싸우는 철도일군들》, 《교원지대 조사단》들과 전선시보 《조국통일을 위하여》를 비롯한 수십편의 장편기록영화들과 조선시보들을 만들어낸 우리의 기록과학영화촬영가들의 피땀이 스며있음을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주체41(1952)년 3월 미제의 극악한 세균전만행을 폭로하는 과학영화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첫 과학영화 《미제의 세균만행》이 태여났으니 세계는 한 나라의 수령이 전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과학영화제작을 위한 구상을 펼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다. 이로써 또 하나의 우리 당의 위력한 직관선전수단, 대중과학기술지식보급의 힘있는 무기가 전화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기록영화를 잘 만들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기록과학영화의 지침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속에서 인민상 제판작품 《공화국기치 만세》와 《봄의 명절》, 《새 조선》, 《중년》, 《줄당콩》, 《벼농사에서의 종합적기계화》 등 수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나올수 있었다.

믿음과 사랑으로 펼치신 일대 전성기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따라 영광넘친 길을 걸어온 주체적기록과학영화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촬영소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수백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던 주체50(1961)년 5월 21일, 잊지 못할 그 봄날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촬영소에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대로만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기쁨과 감격은 끝이 없었다.

앞으로 기록영화촬영소에 자주 나와 힘껏 도와주겠다고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깊은 약속을 남기실 때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예술의 대가,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을 뵈왔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기록영화가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히신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우리의 기록영화는 수령의 력사, 당의 력사를 빛내이는 기록영화로 그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우리의 기록, 과학영화들은 무수한 명화폭들을 필림에 담을수 있었으니 기록영화 《평양》에 깃든 이야기를 더듬어보는 인민의 마음은 뜨겁다.

작업필림을 지도하실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록영화 《평양》은 심장이 없는 영화라고 심각히 지적하시였다. 어느 개별적일군이 내리먹인다고 하여 기록영화 《평양》에서 만경대장면을 빼놓은것 같은데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만경대장면을 크게 부각시켜넣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기록영화 《평양》은 조선의 심장, 평양의 심장이 만경대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한 훌륭한 영화로 완성되였고 잃었던 심장을 다시 찾은 명작으로 력사에 남게 되였다.

당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데서 첫째가는 과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하는것이라는 새로운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여 기록영화발전의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당력사수록자라는 더없는 영예를 안고 기록영화창작가들과 일군들은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전면적으로 수록편집한 기록영화 《김일성수상 랑강도 현지지도》를 완성하여 영화문헌의 새 력사를 펼치였으며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한 불멸의 화폭들을 통하여 영화문헌을 정연한 체계속에 전면적으로 폭넓게 수록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직극 이바지해올수 있었다.

주체62(1973)년 2월의 명절날, 이날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촬영소를 찾으시였다. 모두의 심정을 헤아려 뜻깊은 기념사진도 남기시고 몸소 삽을 드시고 목란꽃나무도 정성껏 심으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적으로 해설선전하는 기록영화는 당보의 사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기록영화건설사상과 리론을 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록영화는 국가의 문헌고와 같고 우리 당력사의 생동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력사자료보관관리사업을 촬영소의 2대과업의 하나로 규정해주시고 력사자료수록과 보관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과학영화의 기본임무도 새롭게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영화는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에게 선진적인 과학상식을 널리 알려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며 과학영화에 정책적인 요구를 구현하고 통속화와 과학성, 예술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근본원칙들을 천명하시였다.

우리 창작가들을 불러일으키신 그날날들에는 깊은 밤도 이른새벽도 있었고 잊지 못할 명절날과 생신날까지도 있었다.

촬영가들과 함께 찬비내리는 궂은날 금강산과 묘향산의 험한 산정에도 오르시고 하늘길로 수천리 항행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마음껏 찍도록 하여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끝없는 믿음과 사랑의 천설을 수놓으시였다.

하루에 무려 3차례씩이나 촬영소를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사연을, 촬영기를 사올바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사오도록 베푸신 하늘같은 은정을, 자신께서 리용하시던 승용차까지 보내주신 감동깊은 일화를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의 부피두터운 연혁사는 전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년대마다에 수많은 기록과학영화들이 태여났다.

인민상제판작품인 《위대한 력사》(1—20부), 《파수의 나라》, 《금강산》, 《우리는 빈터우에서 이렇게 자라났다》, 《사회주의위업의 고무적기치 조선로동당》,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조선의 대답》, 《고체윤활제》, 《큰모재배》, 《정보기술》, 《나노기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믿음과 사랑속에서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는 김일성훈장수훈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수많은 김일성상제판인,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을 배출하고 강위력한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기지로 되였다.

당중앙 받드는 사상전선의 기수들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그처럼 품을 들여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기록과학영화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영화창작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주신다.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였다.

다부작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4부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화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마를 타고 달리시는 장면과 사진문헌들을 더 넣어 훌륭히 완성할데 대하여 영화창작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4부를 또다시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영화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 과학영화 《잔디밭조성과 관리》를 만들도록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는 《체육열풍속의 2015》라는 제목까지 친히 달아주시며 기록영화를 잘 만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걸어온 영광넘친 행로는 자기의 갈피에 위대한 혼연일체의 화폭도 새기였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민족의 대국상으로 하여 온 나라에 피눈물이 대하를 이루고 하늘도 땅도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을.

영화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를 위해 전국각지에서 진행되는 조의행사들을 빠짐없이 촬영해가던 나날에 촬영소의 촬영가들, 창작가들의 심장마다에 타번진것은 어버이장군님 맡기고 가신 인민을 뜨겁게 품어안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였다.

조국앞에 전쟁의 난관도가 밀려왔던 주체104(2015)년 8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종군촬영으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수록할 때에도 그들은 우리 원수님께서 최후승리는 반드시 알당겨지리라는 신념을 간직하지 않았던가.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아래 촬영소의 일군들과 촬영가, 창작가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펼쳐지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자료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귀중한 당력사자료들을 더욱 풍부히 해나가고있다.

당사상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가도록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있어 주체적기록과학영화의 력사는 위대하고 래일도 찬란한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일 신길웅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숭고한 민족애와 열화같은 후대사랑으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반공화국제재압박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6월 30일 미국은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유엔본부에서 비법적인 대조선제재리행과 관련한 그 무슨 통보모임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미국이 유엔사무국이나 안전보장리사회의 그 어떤 위임도 없이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통보모임을 조작한것은 유엔력사상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렬한 행위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으로 된다.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바와 같이 일개 렬강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철두철미 공정성과 적법성,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장에 불과하다.

미국이 몇몇 추종국가들을 거느리고 앞장에 나서 제재분위기를 세워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에 등을 돌려대고있는것도, 유엔사무국자체가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법률적기초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있는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된 비법적인 대조선《제재결의》가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우리에 대한 극악한 일방적제재조치들을 강행하는 한편 일본과 남조선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발동하여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와의 정상적인 경제무역관계와 외교관계까지 단절하라고 강박하고 희유하는 너절한 놀음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유치하고 치졸한 행동이 국제적인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자강력으로 비약하고 전진하는 우리에게 그 어떤 제재나 압박이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한 오산이다.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가 가증될수록 우리의 핵억제력이 질량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것이다.

작곡가 김옥성 생일 100돐 기념음악회 진행

작곡가 김옥성 생일 100돐 기념음악회가 통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나라없던 지난날 수난당한 민족의 설음과 울분속에 자기의 꿈과 재능을 속절없이 묻어야만 했던 김옥성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다운 예술창조의 길을 걷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혁명과 인생의 참된 길을 걸으며 성장한 그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혁명적음악작품창작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지니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들을 수많이 남긴 김옥성의 공로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기념음악회를 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 기자, 편집원들, 예술교육기관 교원, 학생들, 유가족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에는 사회주의조국에 제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녀성2중창과 녀성합창 《만경대의 노래》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당을 따라 충정의 한길만을 걸어온 인민예술가 김옥성의 작품들이 울렸다.

그가 창작한 노래의 제목까지 몸소 고쳐주시며 천만군민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가요들을 더 많이 내놓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이 그대로 곡이 되고 선률이 되여 가렬한 싸움터마다에 울려퍼진 피아노협주곡 《결전의 길로》와 남성4중창 《정찰명의 노래》, 남성고음3중창 《전호속의 나의 노래》 등의 명곡들은 판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판현악과 합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녀성합창 《황금나무 농금나무 산에 심었소》, 녀성고음독창 《강선은 천리마의 고향》 등 행복의 래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심과 락천적인 정서를 민족적색채가 뚜렷하게 형상한 작품들은 천리마세대의 전통을 이어 만리마의 나래를 펴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음악회를 통하여 판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불같은 열정, 높은 실력으로 당을 받들어온 전세대 예술인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혁명의 척후대, 전군의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3일(일요일) 오전 평양체육관에서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소백수체육단, 룡남산체육단 남, 녀선수들의 레스링훈련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한편 1일에 시작된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물에뛰여들기 1급 남, 녀경기가 4일까지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수영 1급 남, 녀경기가 5일까지 사리원아동수영장에서 있게 된다. 또한 5일까지 조정 1급 남, 녀경기가 대동강에서, 키누 1급 남, 녀경기가 보통강에서 벌어진다.

요트 1급 남, 녀경기는 6일부터 대동강의 미림갑문상류와 원산의 송도원앞바다에서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각도, 시, 군의 정권, 경제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과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참관

각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을 비롯한 정권, 경제기관 일군들이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과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을 참관하였다.

일군들은 1일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먼저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시려고 애국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참관자들은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과 이곳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았다.

그들은 온도, 습도, 태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하고 종자선별로부터 파종, 나무모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을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한 양묘장의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나무모들의 생육조건을 최적화할수 있게 꾸려진 묘목온실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양묘장의 희한한 전경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경탄을 표시하였다.

이에 앞서 일군들은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앞장선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을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은 혁명사적교양실에서 농장의 강화발전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안았다.

10여년전 7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농장자체의 힘으로 소문없이 큰일을 한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으며 현대적인 축산설비들도 보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없는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그들은 단미양과 파울염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짐짐승을 기를수 있는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각도, 시, 군의 정권, 경제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 참관

태권도발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힘있게 과시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빠른 시일안에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태권도성지판에서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지난 시기와 달리 모든 경기들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면서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태권도경기심판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매 경기과정에 대한 명백한 분석평가를 진행한 이번 선수권대회는 과학기술로 나라의 태권도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비약의 추동력—교수훈련의 과학화

강원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강원도태권도선수단의 태권도선수들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도 또다시 우승하여 2련승을 안아왔다. 비결에 대하여 말한다면 단장 허기찬동무를 비롯한 선수단일군들이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힘을 넣은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짜고들어 감독, 연구사, 선수들이 다양한 체육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특히 감독, 연구사들이 해당 자료들을 보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탐구의 열정을 더욱 분출시켜 훈련집행에서 3자결합을 강화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주, 월별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육체훈련과 기술전술훈련계획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구체적으로 세우고 앞선 훈련지도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한 결과 강원도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 태권도종목에서 종합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와 함께 평양시, 황해북도, 황해남도태권도선수단에서도 단장들인 김효성, 장동서, 유명민동무들이 앞장에 서서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내민 결과 이번 선수권대회는 마지막경기가 끝난 다음에야 우승팀이 결정될 정도로 매우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황해북도팀과 남포시팀사이에 진행된 남자 17살급 단체맞서기 결승경기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보다 과학적인 교수훈련속에서 기술을 알심있게 련마한 황해북도팀 선수들은 단체맞서기에 앞서 진행된 세부종목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팀으로 인정받았다. 그런가 하면 남포시팀 또한 만만치 않은 팀으로 평가되였다. 팀에는 고일명선수와 같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기술을 습득하여 이번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신진선수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교수훈련의 과학화의 덕이라고 말할수 있다. 치렬하게 진행된 이 경기에서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 대회기간에 7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둔것은 교수훈련의 과학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뚜렷하게 증명해주었다.

기초기술훈련과 앞날의 태권도강자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의 정을철선수에게 개인기술상이 수여되였다. 이 선수를 담당하고있는 감독 김승열동무는 지난 기간 눈앞의 경기성과보다 더 중요한것이 선수들을 태권도모국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라는것을 자각하고 기초기술훈련지도를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어제날의 기준에 만족을 모르는 그는 매 선수들의 나이와 체질, 심리적특성에 맞는 일반육체, 전문육체훈련을 적절히 배합하는데 중심을 두고 훈련내용과 방법들을 부단히 개선하였다. 결과 김승열동무가 키워낸 정을철선수를 비롯하여 여러 선수들이 해당 몸무게급의 개인전, 개인맞서기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으며 남자 15살급 단체맞서기 결승경기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한편 평양학생소년궁전의 녀자선수들은 우수한 태권도선수들로 구성된 팀들과 맞다든 조전에서도 금메달 4개를 포함한 여러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 선수들을 키우고있는 지도교원 김남희동무는 태권도를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태권도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국제경기들에서 성과를 이룩한 선수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 태권도의 발전력사와 밝은 전망 등에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해주면서 흰눈처럼 깨끗한 그들의 가슴속에 태권도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깊이 자리잡게 하였다.

이와 함께 소조원들이 기초기술을 알심있게 다지도록 하는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쟁그리 쏟아부으면서 전도유망한 다종목선수후비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주마다 과제수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정상화하면서 나어린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짧은 시간에 높은 훈련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다.

조국의 영예를 떨칠수 있는 훌륭한 태권도강자후비들을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려는 열의를 안고 훈련에서는 엄격한 지도교원, 생활에서는 다심한 어머니가 된 김남희동무의 헌신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진것이다.

또한 이번 선수권대회 바둑경기에서 오누이인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의 로위성선수와 함경북도태권도선수단의 로위연선수가 기초기술훈련을 알심있게 진행한데 기초하여 높은 바둑기술을 소유함으로써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는 자랑을 지니게 되였다. 바둑강자들을 키워내려는 불같은 열의를 안고 기초기술훈련지도에 열정을 쟁그리 쏟아부어온 황해남도바둑원의 20대 지도교원인 김철범동무가 맡은 여러명의 나어린 선수들의 우승열의가 비낀 모습들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 진행된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태권도부문의 일군들과 감독, 연구사들에게 모든 훈련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갈 때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수 있다는 신심과 의지를 북돋아준 의의깊은 대회였다.

본사기자 지혁철

괴뢰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권적, 반인륜적죄악을 고발한다

박근혜패당의 인권유린범죄록

최근 유엔인권리사회가 남조선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바람에 개코망신을 당한 괴뢰패당이 그것을 수습해보려고 바빠맞아 돌아치며 내외의 더 큰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이 최악의 인권불모지, 민주의 폐허지대라는것은 세상에 공인된 사실이며 이번에 유엔인권리사회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실태자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이 그 무슨 《신중한 검토》니, 《반론》이니 뭐니 하며 앙탈을 부리고있는것은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천하의 인권유린악마 박근혜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에 닿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온갖 반인민적, 반인륜적악행을 일삼으며 남조선을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키고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아온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발가놓기 위하여 이 인권유린범죄록을 낸다.

1. 《유신》독재를 방불케하는 정치테로범죄

《유신》파쑈독재시대라고 하면 남조선사람들은 말만 들어도 치를 떨고있다. 그 소름끼치는 암흑시대가 지금 박근혜년에 의하여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유신》독재자의 파쑈적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혜년은 자기의 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면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제토투옥하고 제거해버리는 정치테로를 일삼아왔다.

박근혜패당은 집권 첫해인 2013년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희를 비롯한 고령의 핵심성원들을 《보안법》에 걸어 검거하고 야만적인 사상전향을 강요하였으며 그해 10월에는 남조선교육계의 대표적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종북단체》로 몰아 합법적지위를 강제로 박탈하였다.

박근혜패당의 정치테로범죄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고 내란음모를 꾸미였다는 어마어마한 정치보략사건을 조작한 박근혜패당은 그를 떡주에 《국회》청사에서 련행하고 그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합진보당을 끝내 해산해치웠다.

박근혜패당은 지난해 법조계의 진보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통일운동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에 대한 파쑈적탄압에 광분하였으며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에 항거하여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놈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긴 주민을 잡아가두고 얼마전에는 그에게 중형을 들씌웠다.

세계인권선언과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들에는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과 처형을 금지하는것이 인신의 자유보장을 위한 핵심조항으로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오늘 남조선에서는 죄아닌 죄로 철창속에 갇혀 가혹한 옥고를 치르는 량심수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은 형무소들에서 괴뢰사법당국의 강압적인 수사로 정치적타살을 당하고있다.

괴뢰공안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의 집권 첫해인 2013년에 100여명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되였는데 이것은 리명박역도의 집권 첫해에 비해 30%나 증가한것으로 된다.

괴뢰검찰의 인권침해행위는 날로 우심해지고있으며 그에 대하여 고발한 건수는 박근혜의 집권 2년사이에 40건이나 늘어났다.

또한 올해 3월 임의의 대상과 단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합법화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인 《테로방지법》까지 조작됨으로써 남조선에서는 정치테로의 본산지인 미국에서조차 중범죄로 취급되는 불법무법의 정치사찰행위가 보다 공공연히 벌어지게 되였다.

《유신》망령을 되살리는 박근혜패당의 극악무도한 정치테로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고 불의가 정의에 짓부림을 하는 중세기적암흑천지로 전락되였다.

2. 전대미문의 극악한 민주주의교살범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인간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이다.

남조선에서는 박근혜패당의 야만적인 폭압통치로 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있다.

역적패당은 집권초기 《언론장악을 하지 않겠다.》고 민심을 기만하고서는 력대 통치배들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언론장악책동에 매달렸다.

공영방송사들의 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막후에서 은밀하게 조종하는 방법으로 주요언론기관들의 요직들에 저들의 앞잡이들을 들여앉히였으며 그가 누구이건 청와대의 생각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말하거나 기사를 쓰고 편집물을 만드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언론사들에 《말언지침》이니, 《보도지침》이니 하는것을 수시로 내리먹이는가 하면 정의를 대변하거나 독재통치에 반기를 드는것은 물론 저들의 비위를 조금만 건드리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즉시에 삭제를 강요하고 지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종북》의 감투를 씌워 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동원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역적패당은 집권이후 8개월동안에만도 무려 2만 3 790여건에 달하는 글들을 《보안법》에 걸어 인터네트싸이트에서 삭제하고 수백개의 싸이트들을 강제폐쇄하였다.

괴뢰패당이 지난해 2월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지향하며 15년간 의로운 언론활동을 벌려온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를 강제로 폐간시킨것은 1961년 《민족일보》를 강제폐간시킨 《유신》독재자의 망동을 찜쪄먹을 또 하나의 극악한 언론탄압이였다.

남조선에서는 《정권》을 비호하거나 동족을 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정권》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란 있을수 없다.

《세월》호침몰당시 무능한 박근혜를 허수아비에 비유한 그림을 그렸다고 하여 한 미술가가 각방으로 박해를 받고 해외동포녀성이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북의 맥주가 맛이 좋고 강은 아주 깨끗하다.》고 했다고 하여 《북찬양, 고무죄》에 걸려 남조선에서 강제추방당하였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박근혜패당의 언론탄압만행에 대해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권력람용》, 《파거 전두환 〈정권〉도 울고갈 언론탄압의 극치》로 단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국제인권단체들과 언론감시단체들이 남조선이 언론의 자유보장에서 세계최악이라고 평가하였겠는가.

민주주의교살자로서의 박근혜패당의 범죄적정체는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괴뢰패당은 철도민영화철회, 로조탄압중단 등을 요구하는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철도로조원 190여명을 법에 고소하고 체포령장을 발부한데 이어 무려 8 500여명의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하였을뿐아니라 60여개 중대 5 000여명의 괴뢰경찰깡패들을 내몰아 합법적로조인 민주로총본부를 기습하고 130여명을 련행하는 전례없는 폭압만행을 감행하였다.

지난해 4월 18일과 24일, 5월 1일 괴뢰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나선 각계층 주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며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대규모민중총궐기투쟁이 전개된 지난해 11월 괴뢰경찰이 하루동안 평화적시위자들에게 쏘아댄 물대포사용량은 18만 2 000여L, 독성최루액사용량은 440여L나 된다.

파쑈깡패무리들은 시위에 참가한 한 농민에게 독성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여 중태에 빠뜨리는 잔악무도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남조선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유엔인권리사회의 한 특별보고관은 남조선에서 집회와 결사, 시위의 자유가 당국에 의해 심히 억제되고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박근혜패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극악한 교살자, 천하의 지독한 파쑈광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3. 민생을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범죄

남조선은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한 생존권말살지대로 전락되고있다.

박근혜년의 집권 3년간 년평균경제성장률은 김대중, 로무현 집권시기의 3분의 2에도 못미치고 리명박《정권》시기보다도 더 떨어져 위기국단으로 치닫고있다.

역도년의 무모한 《경기부양정책》으로 현재 남조선의 《국가부채》는 력대 최고인 1조 1 700억US$로 치솟고 가정들이 진 빚은 3년전에 비해 30%더 늘어나 1조 2 000억US$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구가 몇년동안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해도 못다 갚을 천문학적액수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게다가 박근혜년이 《외교치적》을 쌓느라 한번에 300만US$씩 탕진하며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을 벌려놓은 바람에 남조선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고 주변나라들의 경제악화영향으로 수출액은 해마다 10%이상 줄어들고있다.

지난해말 파산에 직면한 대기업들은 54개로서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고 자체의 영업리익으로 리자도 갚지 못하는 대기업은 567개나 되며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2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전반에로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였다.

여기에 올해 2월 박근혜패당의 개성공업지구폐쇄망동으로 124개의 남조선진출기업을 포함한 6 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기업들의 련쇄적인 파산, 몰락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현재 전체 실업자는 3년전에 비해 23.3%나 늘어난 450여만명에 이르고있으며 그가운데 6개월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지난해보다 40.2%로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남조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데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34.2%로서 사상 최악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청년들의 수는 2014년에 비해 4.7% 증가하였으며 15살-29살 청년층가운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근로자수는 2011년에 비해 20만명이나 더 늘어났다.

극도로 악화된 경제파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남조선인민들의 생계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 로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고된 로동에 시달리고있는 로동자수는 무려 264만명으로서 박근혜패당의 집권이후 94만명이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10년전의 8.8배에서 지금은 12배로 더 벌어졌으며 한중도 안되는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불평등이 제일 심한것으로 평가되였다.

여기에 박근혜패당의 부동산투기책동으로 인한 류례없는 전세대란, 주택대란까지 겹쳐 전체 주민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세대가 세방이나 쪽방, 비닐집, 판자집, 집합, 움막 등과 같은 집 아닌 집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형편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삶을 아예 포기하거나 정든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이민행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절대다수가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며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고있을 때 박근혜는 자기재산을 2년동안에 60만US$나 더 불구었으며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뻔질나게 옷을 갈아입고 여기저기 돌아치면서 《국민행복》타령만을 늘어놓아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다.

남조선 각계층이 박근혜에게 《청와대안방에서만 뒹굴며 고생도 못해보고 아이도 못 낳아본년》,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천하에 몹쓸년》,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저주를 퍼부으며 반박근혜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4. 남조선을 극도의 불안사회로 전락시킨 범죄

국제인권협약들에는 매개 국가들이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육체적 및 정신적건강을 보호할 의무조항들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보호는 전혀 안중에 없이 저들의 더러운 잔명유지에만 급급하면서 남조선을 인간생지옥,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으로 만들어놓았다.

2014년 4월 세계를 경악시킨 《세월》호대참사는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월》호대참사는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박근혜패당의 집단학살범죄이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여 숨져가고있던 그 시각 박근혜는 그에 대해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얼굴주름살을 없애는 근육수축주사를 맞고 무려 7시간동안이나 청와대안방에 자빠져있었다.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승객들이 선실에 갇힌채로 침몰하는 배를 팽개치고 저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살인범죄자라면 교의적으로 구조를 외면한 박근혜년은 그 살인주범이다.

더욱 치떨리는것은 온 남조선땅이 초상난 집이나 다름없이 된 때에 미국대통령 오바마까지 끌어들여 온갖 코태를 다 부리면서 통족대결에 미쳐날뛴것이다.

사람의 가죽을 쓰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추태에 서방언론들까지도 《박근혜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인간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패당은 《세월》호대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건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선체인양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마저 강제로 종료시키려 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의 집권기간 남조선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체육관건물지붕붕괴사고, 서울지하철도전동차충돌사고, 전라남도 장성군 료양병원화재사고, 아시아나항공회사소속 려객기착륙사고 등 지상과 지하, 하늘 도처에서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남조선주민들속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불만과 하소연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엄중히 해친 박근혜패당의 범죄는 지난해 5월 남조선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혼란에 빠뜨린 호흡기성전염병(메르스)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박근혜패당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처로 전염병사태는 200여일동안 지속되면서 감염자수 186명, 사망자수 38명, 격리대상자는 1만 6 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지금도 원인모를 질병들이 계속 퍼져 사람들은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남조선을 가리켜 《위생방역이 제일 한심한 지역》, 《자본의 리익을 위해서는 모든것이 용인되는 가장 천박한 곳》이라고 비난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극도로 혈악한 로동조건과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각종 흉악범죄, 심각한 자살사태는 세계적으로 최대수치를 기록하고있어 남조선은 《최악의 산업재해지역》, 《범죄대국》, 《자살왕국》으로 지탄받고있다.

폭력적이며 변태적인 풍조가 성행하여 부모처자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근친살인을 비롯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형태의 강력범죄가 그칠 사이없이 일어나고있다.

괴뢰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가정들에서 발생한 폭력건수는 4만건이상으로서 전해에 비해 2배이상이였으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폭력건수는 2014년 한해동안보다 1 000건이상이나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싶다.》, 《백을대로 썩은 암덩어리인 박근혜를 칼로 도려내자.》, 《국민을 목졸라죽이려드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박살내자.》는 분노의 웨침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고있다.

5. 사회적취약계층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범죄

녀성들과 어린이, 로인들, 장애자들은 그 어느 사회에서나 특별히 보호되여야 할 취약계층이며 그들의 사회적처지와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것은 인권실태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사회적취약계층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규범들이 채택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인권보호의 날들이 제정되여있다.

박근혜패당은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콘것처럼 《대통령》선거때는 물론 집권이후 《녀성차별근절》, 《무상보육》, 《복지확대》 등을 떠들었지만 그것은 민심을 우롱하고 기만하기 위한것에 불과하였다.

현재 남조선녀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와 지역들가운데서 가장 낮고 남성들과의 임금격차는 39%로서 발전도상나라들보다도 더 한심한 형편에 있다.

매해 4 000~5 000명의 녀성들이 산전산후휴가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전락되고 녀성로동자의 80%이상이 로동조건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시간제일자리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그중 30%는 단시간로동자라는 리유로 보험금, 퇴직금 등도 받을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전체 녀성의 3분의 2이상이 항시적인 성폭행위협에 시달리고있는가 하면 남조선의 성매매산업은 년간 7조원규모에 이르고있어 《국제적인 인신매매기지》, 《성매매천국》이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부모들의 사망과 사회적판심속에 떠받들려야 할 어린이들이 폭력과 학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인천의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원이 4살 난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폭행사건을 비롯하여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는 어린이학대행위들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괴뢰관계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의 학대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14년에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7배에 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어린이집》이 어린이보육시설인지 어린이형무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개탄하고있다.

장애자들과 로인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전체 장애자의 77.2%가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있고 15살이상 장애자의 60%는 직업도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특히 17만명에 달하는 지적장애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남성들은 노예로동, 녀성들은 성폭력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2014년에 온 남조선땅을 들었다 놓은 엄전노예사건은 장애자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실태를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로인빈곤률, 자살률은 세계 1위로서 최악에 달하고있으며 로인의 20%에 해당하는 138만명이 사회와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장애자들과 로인들을 위한 그 무슨 《복지시설》이라는데서는 관리원의 감무를 쓴자들이 시끄럽고 귀찮다고 하여 장애자와 로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목조르기, 걸어차기 등 격투장에서나 볼수 있는 끔찍한 폭행을 가하고있어 각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의 황량한 페허지대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6. 미일상전의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을 묵인한 범죄

생화학무기는 국제법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반인륜적인 대량살상무기이다.

그러나 쓸개빠진 박근혜패당은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탄저균, 페스트균 등 세균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여 온 겨레를 떨살시킬 생화학실험을 벌리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비호두둔하는 용납 못할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지난해 박근혜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탄저균을 불법반입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미군측으로부터 사전통보받지 못하였다고 딴전을 피우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였는가 하면 《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군측이 관심을 돌려주기 바란다.》느니 뭐니 하며 비굴하게 놀아댔다.

그리고 미국방성이 탄저균불법반입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고 책임질 주체도 특정할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뻔뻔스러운 수작질을 할 때에도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또한 12월 17일 상전과 그 무슨 공동조사결과발표놀음이라는것을 벌려놓고는 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에 15차례 탄저균표본을 반입하여 각종 생화학실험과 훈련을 하였지만 그것은 《죽은 탄저균》이였다느니, 송달될 당시 미군이 안전하게 독성을 제거하거나 폐기하였다느니 하며 극구 비호두둔해나섰다.

미국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은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되고있다.

2014년 5월 미제침략군놈들이 대낮에 남조선녀성을 집단적으로 성추행하고 그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행한 사건, 택시료금을 냈것을 요구하는 운전사에게 총기를 마구 휘두르며 구타한 사건, 로인부부에 대한 야수적인 폭행사건을 비롯하여 미군범죄건수는 매해 300건이상이나 되며 그중에서 절도, 방화,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44%를 차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개빠진 박근혜역적패당은 남조선미국 《동맹》강화와 《행정협정》을 넘볼처럼 외워대면서 미군범죄자들을 재판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고스란히 미국것들에게 넘겨주며 묵인해주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유신》독재자의 친일매국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백지화해주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듯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 녀성들에게 몹쓸리치는 성노예살이를 강요하고 무참히 살륙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백지화하기 위한 친일매국행위는 원래 특등친일주구인 《유신》독재자가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지 못한것은 불행한 일》이라느니, 《제2의 리완용이가 되더라도 회담을 꼭 성공》시키겠다느니 뭐니 하고 매번이면서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아낼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굴욕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였다.

제 애비의 친일근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몇푼의 돈을 받아먹는것으로 백지화시키는 매국배족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은것은 물론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바라는 아시아인민들의 요구에 거역해나서는 용납 못할 특급범죄를 감행하였다.

박근혜패당의 사대매국적인 책동으로 하여 특대형인권유린범죄국인 일본은 오만할대로 오만해져 이제는 저들의 과거범죄를 부정해나서는것은 물론 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는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미일상전들의 특대형인권범죄를 묵인한 박근혜패당을 국제법정에,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워 철추를 안겨야 한다고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7.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감행한 반인륜적범죄

박근혜패당은 온 남조선을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대로 만든것도 모자라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를 수없이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이 정보원, 통일부, 외교부와 《북리탈주민보호센터》, 《북리탈주민지원재단》,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과 같은 민간의 탈을 쓴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감행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 강제억류, 《귀순》강요책동이 그 실례이다.

2013년 5월 박근혜가 9명의 우리 청소년들을 남조선으로 끌고가려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다시는 그러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줴쳐댔고 그해 6월 해외에서 유인랍치한 10여명의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비밀작전》을 청와대 지하방공호에서 직접 지휘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패당은 2015년 7월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동해상에서 표류되였던 우리 주민 5명을 강제억류하고 그중 3명은 생억지를 부리면서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김련희녀성에게 《북송불가능》이니 뭐니 하며 갖은 정치적박해와 탄압을 가하고있다.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악마로서의 박근혜패당의 정체는 올해 4월 해외에서 근무하던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고 《자유의사》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강제억류하고있는데서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는 북과 남에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지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다가 남조선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설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였다.

그러나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박근혜패당은 서울에 나가서라도 자식들을 만나겠다는 피해자가족들의 요구와 사건의 진상규명, 랍치피해녀성들의 신상공개 등을 요구하는 남조선각계층과 국제사회계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피해자들을 계속 정보원의 감시통제하에 두고 《전향》공작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얼마전에는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킬데 대한 법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판을 끝내 결렬시킴으로써 불법무법의 반인륜집단, 천하의 사기협잡배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드러냈다.

박근혜패당의 반인륜적범죄에서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신성한 인권을 동족대결과 모해책동에 악용하고있는것이다.

참다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있을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를 머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였다.

박근혜는 집권하기 바쁘게 미국과 일본것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청와대안방으로 끌어들여 온갖 아양을 떨면서 《북인권》나발을 불어대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걸하였는가 하면 여기저기 싸다니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국제화해보려고 악을 써댔다.

지난해 6월에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반공화국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하였으며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른 유엔의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조작에도 돌격대가 되여 극구 가담해나섰다.

올해 3월에는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에도 통과되지 못한 반통일악법인 《북인권법》을 괴뢰국회에서 강압통과시켰다.

지금 동족압살과 《제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는 박근혜패당의 대결망동은 온 겨레와 전세계의 비난과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대로 전락된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과 저들의 반인권적만고죄악을 가리워보려고 발광할수록 비렬하고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고 비참한 종말을 재촉하게 될뿐이다.

인권유린의 왕초인 박근혜패당은 온 민족과 인류의 한결같은 규탄속에 력사의 가장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통일연구원

주체105(2016)년 7월 1일 평양

민족대단결의지의 과시, 불타는 애국의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오늘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는 비할바없이 강렬해지고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앞에서 누구도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통일성업을 외면하거나 방관시할 권리도 없다. 전체 조선민족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대결의 장벽을 짓부시고 통일의 환희로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총매진해나가야 할 시각이 왔다.

온 겨레의 가슴속에서 끓어넘치는 통일애국의 숭고한 일념과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였다.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치는 지금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과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주시하고있다.

해내외 온 겨레는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에 다시금 경탄을 금치 못하며 우리의 공명정대한 조치를 절대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각이한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로선의 실패가 적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예외없이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한 림시책에 불과한것이였다. 하지만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해 온 겨레를 차별없이 한줄에 안아주고 애국의 길에서 한번 손잡은 사람들과는 영원히 한길을 가는 가장 숭고한 사상이다.

비록 정견이 다르고 파거가 어지럽다고 해도 가슴속에 자그마한 애국의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너그럽게 안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내세워주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한없이 넓은 포용력이고 뜨거운 민족애이다.

우리 당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은 결코 대방을 일시적리용물로 삼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유전술이 아니라 애국의 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영원한 동행자로 내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빛내여주는 광폭의 사상이다.

주의주장보다 민족을 우위에 놓고 파거보다 애국의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 광폭의 품에 안기여 민족단합의 새 걸음을 내디딘 인생들이 그 얼마이던가. 반공일선에서 배국과 동족대결의 총을 잡았던 사람들도, 리념상불리해로 한때 걸음을 헛디디였던 사람들도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재생의 삶을 누리였다. 인력의 큼, 숭고한 민족애의 품을 찾아 내짚은 그 발걸음들과 함께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가 열렸고 겨레의 심장에 혈연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쳤다. 그 나날 강토를 진감시켰던 통일의 함성은 우리 당의 위대한 민족단합의 리념에 공감한 겨레의 감격의 환호성, 환희의 메아리였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제도에 앞서 민족을 우선시하는 우리 당의 시종일관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은 조국통일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해왔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이 지닌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우리 당의 자주통일방략은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히는 향도의 횃불이며 통일강국건설의 정확한 리정표이다. 험난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찾고 새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진리가 집대성되여있고 통일된 강토에서 천년만년 목락을 누려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 응축되여있는 이 통일방략을 따르는 여기에 분렬의 장벽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하루속히 허물고 통일과 부강번영의 광활한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 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방향과 방도가 환히 밝혀져있다.

계급과 계층의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받아들여 동족대결의 극단적상태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출로를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누구나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없는 통일전선공세》라느니,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위장평화공세》라느니 하는 당치않은 궤변으로 모독하고 부정해나서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종노도치는 자주통일의 격랑속에서 거품처럼 밀려나는 반통일분자들의 단말마적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묵전대 화석처럼 굳어진 대결관념을 떨어버리고 신주처럼 붙안고 돌아가는 외세와의 공조공동틀을 제버릴 때가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여기저기에 통일문제해결을 구걸하는 악습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강해지며 잘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마주앉아 자주적으로 하여야 한다.

북남대화가 체면주의와 말싸움이라는 고질적병폐를 떨어버리고 통일지향적인 대화로, 민족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결실있는 대화로 바뀌여 겨레의 박수갈채를 모았던 6.15시대를 돌이켜보라. 그러면 대답은 명백하다. 한세기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아오며 근성화된 사대와 외세의존을 결정적으로 떨어버리지 않는다면 남조선의 그 어떤 당국자나 정치인들에게도 결코 미래가 없을것이다.

동족의 편에 서서 통일의 길을 함께 가겠는가 아니면 외세와 함께 비참한 과멸을 당하겠는가. 이제라도 제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책임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제 살길이나 찾겠다고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을 섬겨바치며 통일을 가로막는다면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사대매국노로 락인되여 력사와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자주통일시대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자기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력사와 후손들앞에 통일애국자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새겨갈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참되게 짚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와 관련한 우리의 제의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허 영 민

조선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가회의 참가자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네팔의 까트만두에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가회의 참가자들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세계평화리사회 집행서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변호사련맹 서기장은 조선의 핵보유를 걸고드는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장기간에 걸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고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슈최고검찰소 부소장은 조선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전초선에 서 있다고 하면서 세계평화애호력량은 마땅히 미제와 단독으로 맞서싸우는 조선을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은 70년이상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을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한편 회의에서 채택된 까트만두선언은 조선민족자체의 단합된 힘에 의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 꾸바에서 개막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 개막행사가 6월 24일 꾸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꾸바 제 인민간의 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가금유전자중앙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꾸바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후안 호세 데온 배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일으킨 처절한 조선전쟁에 대하여 잊지 않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살인자로서의 야만성과 기질을 충동원하였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앞에 미제는 무릎을 꿇고말았다.

혁명의 전위물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조선인민앞에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졌으며 세계는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이 도발한 전쟁에서 참패당하는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은 북과 남으로 분렬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라울 까스뜨로동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풍고발전시키시였으며 라울 까스뜨로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꾸어가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은 굳건하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이어 우리 나라 영화들인 《38분계선은 누가 그었는가》, 《조선전쟁의 장본인》이 상영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더욱 드러난 핵범인의 정체

최근 스웨리에의 한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이 앞으로 30년간 1조US$의 자금을 들여 핵무기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혔다. 그에 의하면 앞으로 새형의 핵폭탄생산을 위한 흐름선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무기현대화계획이 핵무기축감을 운운해온 오바마의 약속과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구상은 모순으로 가득찬 허황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평하였다.

세상에 잘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핵무기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유일무이하게 인류에게 핵재난을 들씌운 나라이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핵무기만 가지고서도 세계를 구석기시대에로 되돌려세울수 있다.

핵동둥이를 휘둘러 군사적우위권을 확보하여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미국은 질적공고화를 통한 핵우세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야욕을 손쉽게 실현할것을 타산하고있다. 특히 전조선반도를 타고앉는것으로써 세계지배야망실현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것이 현 단계에서의 미국의 목표이다. 조선반도를 전략적거점으로 삼고 주변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여 목조르기를 하자는것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핵위협공갈, 법죄적인 핵무기현대화책동의 엄중성,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해놓고 수십년동안 매일과 같이 가해지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획책하였고 21세기초에는 부쉬행정부가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오바마행정부 역시 우리를 핵불사용대상국명단에서 제외시키는것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위협천만하게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있다.

미국은 핵동력잠수함 《미씨씨피》호,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한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공갈하면서 조선반도에 구도의 긴장상태를 불아왔다. 최근에는 무엄하게도 우리의 핵 및 군사시설들에 대한 《정밀공습작전》을 단행하여 우리의 핵능력을 《초토화》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북조선핵문제에 대한 군사적대응》이라는 보고서까지 작성,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세계최대의 핵위협국, 핵전파국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가련한 오바마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뿐아니라 핵무기를 전파하는 도발행위를 하고있다.》느니, 《핵무기없는 세계실현의 최대의 장애》라느니, 우리의 《핵과 한도미싸일계획은 지역과 미국,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느니 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적으로 악담질을 해댄것이다. 조선반도를 기어이 핵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워 침략전쟁을 정당화해보자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그러한 날강도적인 수법이 오늘의 밝은 세상에서 통할리 만무하다. 미국이 아무리 흑백을 전도하려 해도 세계최대의 핵위협국, 핵전파국으로서의 법죄적정체는 절대로 가려질수 없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가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선제공격적인 대응방식을 택하게 된것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극악한 핵위협공갈책동과 제재압살소동이 몰아온 응당한 귀결이다.

우리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해온 미국이 우리의 적수로 있는 한 우리는 미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더 많은 핵시험과 전략탄도로케트발사가 있게 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분별을 잃고 계속 무모한 반공화국핵위협공갈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세계최대의 핵위협국의 정체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뿐이다.

조 택 범

가리울수 없는 랍치범죄자들의 죄악

괴뢰정보원쌍패들이 해외에서 우리 인원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특대형테로행위를 감행한 사실은 이미 폭로되였다. 내외여론이 청하고있는것처럼 이 사건은 괴뢰정보원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랍치범죄이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인류량심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혈육들을 강제로 생리별시킨 남조선쌍패들의 법죄적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랍치행위에 가담한자들을 엄벌에 처할것과 우리 인원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당국의 처사는 국제인기준에 어긋나는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랍치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며 공화국과 피해자가족들의 요구대로 송환과 가족면담 등을 주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은 집단유인랍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장재랍치된 우리 인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와 면담을 여러차례 강하게 요구하였다. 얼마전에는 또다시 괴뢰법원에 우리 인원들과의 면회를 요구하여 소송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그들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의 추악한 범죄의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지금껏 남조선당국은 민변의 요구를 그 무슨 《자유의사》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며 그때마다 가로막아왔다. 이번에도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법원》에 청구한 우리 인원들의 출석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고 저들의 끄나불인 법정대리인을 내보내여 재판을 끝내 결렬시키고말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당국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민변의 법적소송을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소행으로 여기고 그들이 제기한대로 필요한 증명서류도 해주었으며 피해자가족들의 위임장도 보내주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내외여론의 항의와 규탄,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법정에 끌려나와서는 《인권침해》니, 《피해》니 뭐니 하는 황당무계한 수작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통일부를 내세워 그 무슨 《보호》따위를 운운하며 정보원쌍패들의 죄행을 두둔해나섰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저들의 반인륜적인 랍치범죄를 정당화해보려고 날뛰였다.

사실 남조선당국에는 피해자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민변의 요구를 거절할 하등의 리유와 구실도 없다. 더우기 말끝마다 《국제판례》니, 《인도주의》니 하고 떠들어온 남조선당국자들이 생리별을 당한 부모와 자식들이 하루빨리 만날수 있게 해주는것을 거부할 리유가 있는가. 괴뢰당국자들이 랍치된 우리 인원들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며 그것을 한사코 회피하려 하는것은 저들의 범죄행위의 진면모가 폭로되는것이 무엇기때문이다. 어떻게 하나 그들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집단유인랍치범죄의 진상을 언제까지나 흑막속에 묻어버리며 시간을 끌어 사건을 《자진탈북》으로 꾸며보려는것이 괴뢰들의 술책이다.

지금껏 괴뢰들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원과 인신매매거간군들을 내풀어 해외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랍치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지어 어린이들까지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갔다.

괴뢰정보원에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와 반공화국모략을 전문으로 하는 《북리탈주민보호센터》라는것이 있다. 이곳은 반공화국모략과 음모의 소굴이다. 여기에서 무지막지한 정보원쌍패들은 장재로 유인랍치한 우리 인원들에게 야만적인 고문과 위협공갈을 가하고 《귀순》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고서는 그에 따라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괴뢰들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바다에서 표류하던 우리 주민들까지 제 소굴로 끌고가 《귀순》을 강요하고있다.

쌍패들에게 유인랍치되여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인원들의 소름끼치는 체험담은 괴뢰당국의 비렬한 반인륜적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범죄자들의 마수에 걸려 죄악의 인권불모지로 끌려가 고독과 절망, 박해와 치욕으로 몸부림쳤던 나날을 돌이켜보며 우리 공화국을 노리고 감행하는 괴뢰당국의 범죄적만행을 폭로단죄하였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우리 인원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갖은 회유기만과 협박을 들이대며 어떻게 하나 그들에 대한 유인랍치를 《자진탈북》으로 꾸며보려고 발광하고있다. 현실은 괴뢰패당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인권유린의 주범들이고 민족반역집단임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따위 너절한 범죄행위로 우리를 감히 어쩌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오산이다. 반역패당의 추악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은 가증스러운 억적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만을 굳세게 해줄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더이상 통할수 없는 유치한 모략소동을 걷어치우고 유인랍치하여 장재로 억류구금하고있는 우리 인원들을 당장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친륜을 어기는 반인륜적죄악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천벌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본사기자 감 설 하

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를 요구하여 시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이 6월 28일 서울의 청와대주변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인 길원옥, 김복동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계층 군중들은 《10억¥ 필요없다! 일본정부는 공식사죄, 법적배상하라!》라고 씌여진 선전물을 들고 시위투쟁을 벌렸다.

이에 앞서 전국행동은 괴뢰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노예문제《합의》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편지쓰기선전활동을 하였다.

남조선에서 전염병 급격히 전파

6월 23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전염병인 수족구병이 급격히 전파되면서 환자수가 대폭 늘어나고있다.

지난주에만도 두주일전에 비해 40%나 늘어났다.

올해 수족구병환자수는 2010년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제때에 줄행랑을 놓는것이 상책이다

요즘 미국정계에서 남조선주둔 미군비용문제를 놓고 이러저러한 소리들이 튀여나오고있다. 그것을 지여짜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조선이 더 많은 미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것이다. 당리당략을 놓고 치렬한 란투극까지 벌리는 미국정객들이 여기에서만은 저마끔 목청을 돋구며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그 누구에게 베푸는 은총처럼 떠들어대는것은 참으로 역겹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우리 민족이 바라거나 요구한것이 아니다. 철두철미 그것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지배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강점이였고 침략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엽에 벌써 《조선독립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 미국은 그후 여러 국제회담들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조선민족이 《자치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대국들의 공동관리밑에서 그것을 키운 다음 조선에 독립을 부여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1945년 8월에 이르러 급변하는 전쟁형세와 조건은 조선반도에 대한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실현하려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번져갔다. 이에 위구를 느낀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침략야욕을 일시 누르고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할 계획을 꾸미였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사는 이렇게 시작되였으며 조선반도, 조선민족의 쓰라린 분렬사도 이렇게 시작되였다.

70여년을 헤아리는 미군의 남조선강점기간 조선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모든 무장충돌들, 교전들의 배경에는 대규모의 미군무력을 장기주둔시키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일삼고있는 미국이 있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곧 힘의 전략이다. 우리에 대한 끈질긴 제재와 악랄한 봉쇄, 유화정책이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군사적힘에 의거한 위협과 공갈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매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려놓는 각종 명목의 크고작은 대조선침략전쟁연습들이 무려 40여차나 된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얼마나 힘의 전략에 매달리고있는가를 뚜렷이 알수 있게 한다. 광란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에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군 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불장난소동이 절정에 오른 시기에 터진 지난해 8월의 조선반도사태는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비단 조선반도만이 아니다.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는 곳에서는 례외없이 평화가 교란되고 정세가 불안정하다.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있는 곳에서는 국가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침해, 유린당하고있으며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미군에 의한 살인과 폭행, 락랑 등 각종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다. 오죽하면 지역인민들이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감행되지 않는 날은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겠는가. 미제침략군은 《살인군단》, 《강간군단》, 《성폭행군단》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최근에도 일본의 오끼나와에서는 범죄의 소굴인 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6만 5000명의 대규모항의집회가 진행되여 주일미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미공군기지가 틀고앉은 도이췰란드의 람슈타인에서도 각계층 군중이 무차별적인 무인기공습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있는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며 미군기지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객들이 뻔뻔스럽게도 해외주둔 미군을 《평화의 사도》로 둔갑시키며 그 무슨 보상에 대해 론하고있는데는 도처에서 거세여지는 반미기운을 눅잦히는 한편 전쟁머슴군, 하수인들의 돈주머니를 말끔히 털어내여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현 미행정부가 강행하는 대외정책의 기둥으로 되고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이 미국에 대항해나서지 못하도록 제압함으로써 군사패권을 유지한다는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최신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미군을 질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이 우리의 《위협》설을 요란스럽게 피뜨리면서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지역나라들에 비한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적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는 북조선을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위협적》이라고 하는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주둔할 명분을 세우기 위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동문제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책임자는 북남사이의 협력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지금 조선의 〈위협〉을 구실로 로씨야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역내 반항공체계를 구축하는것과 함께 최첨단군사기지를 배치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북남관계긴장은 미국이 지역문제에 간섭할수 있는 구실을 준다고 볼수 있다.》라고 까밝혔다.

미국이 조선반도를 저들의 침략야욕실현의 통락물로 삼으려는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침략의 파탄으로 삼고 대조선외교정책을 책정하였던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지역과 세계정세를 마음먹은대로 평정하는 세계적인 강국, 동방의 핵대국이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도발책동으로써는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더 커졌다는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미국이 아직도 시대의 변천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가당 종착점은 전쟁의 불도가니뿐이다. 민족의 동질성을 끊임없이 파괴하며 남남이 되여가는 70년이 넘는 민족분렬의 비극사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얼마전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만리대공에 솟구쳐오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성공의 장쾌한 메아리는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감히 건드리려는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완전히 초토화해버리려는 주체조선의 철의 선언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미국이 강요하려고 하는 핵전쟁의 첫째가는 제물이다. 일찌기 보수적경향의 미국두뇌집단으로 알려진 케이토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수만명의 미군병사를 핵전쟁의 《인질》로 공급한셈이므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정객들은 남조선주둔 미군비용문제로 저들의 하수인을 다불러대기에 앞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배비한 미제침략군과 미군기지들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줄행랑도 제때에 놓아야 하는 법이다.

배 금 희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암적존재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동족대결정책을 계속 강행추진할 심산밑에 통일부에 청와대에서 비서관노릇을 하던 김형석이라는 심복들개를 차관으로 들여앉힌것이 각계의 우려와 비난을 자아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의 전 대표 김무성, 친박계의 《만형》격이라고 하는 서청원 그리고 최경환 등 이 당의 《중진인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한자리씩 차지한것이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 사태가 청와대의 각본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야가 마주앉아 벌린 20대 《국회》구성협상에는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계속 뻗쳐졌다. 남조선집권자는 여야당사이의 20대 《국회》구성협상문제에 중뿔나게 끼어들어 《국회》구성을 제 구미에 맞게 할 판이였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자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부재질한것도 청와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이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였지만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집권여당으로서 청와대의 의견을 듣지 않을수 없다.》고 우기면서 집권자의 돌려리노릇만 하였다. 결과 김무성과 서청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악질대결분자들이 야당인사가 위원장을 하게 되여있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 무리로 들이앉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집권자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야당세력의 활동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자는것이다.

뼈속까지 사대와 매국에 썩들대로 썩든 건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의 반역적정체는 이미 낱낱이 폭로되였다. 이자의 사대매국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본색은 미국상전들을 찾아가 온갖 너스레를 다 떨며 《북이 병진로선을 포기》하도록 도와달라고 역겹게 구절질하고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미제살인귀들을 그 무슨 《은인》으로 개여올리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꽝대국을 벌려놓은것 그리고 지난해 8월 북남사이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된 위험천만한 시기에 그 누구의 《사과》니 뭐니 하며 대결과 전쟁을 마구 선동한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역적이기에 김무성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미국의 노예》, 《사대주의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서청원 역시 다를바 없다. 이자는 남조선 각계가 청와대가 추진하는 력사교과서《국정화》놀음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자 《북이 지랑을 내려 종북세력을 선동한다.》느니, 《총궐기투쟁지시》까지 한다.》느니 하면서 야당이 《북의 남남갈등전술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생억지를 부리였다. 그리고 당국의 정책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사법당국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기까지 하였다. 부정부패죄로 감옥밥을 먹고있던 서청원이 현 남조선집권자의 특별사면을 받은 그의 손때문은 주구이라는 사실은 더욱 시사해주는바가 크다.

남조선집권자가 이처럼 극우보수분자들과 악질심복들을 통일부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등에 박아넣고있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이자들을 들어쥐고 북남대결과 동족압살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려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20대 《국회》개원식이라는데 나타나 《북핵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다해나갈것이라느니, 《북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댄것도 그의 이러한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도 시종일관하게 이어지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의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자세는 실로 완고하고 구태의연하기 그지없다.

사실들은 남조선집권자와 《새누리당》의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암적존재이며 하루빨리 제거되여야 할 재앙의 화근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ㄱ-611065(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